논어 13편 자로 30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以不教民戰，是謂棄之。」

독음 · 자왈 이불교민전 시위기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가르치고 준비시키지 않은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버리는 일과 같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以 써 이 이 / 不 아닐 불

教 가르칠 교 / 民 백성 민 민 / 戰 싸움 전 전 / 是 이 시 시

謂 고할 위 위 / 棄 버릴 기 기 / 之 갈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